



[산업] 전기차 잇단 화재 후속 대책마련 집중 배터리 과충전 조심해야 06



Life

[라이프] 이베이코리아 스마일배송 역대급 흥행 너



# 서울 생활치료센터 이용자, 의료진 친절했지만 치료는 '글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대상 설문조사**  
매우 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 1점

입소 절차	입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3.5점
	입소까지 소요된 대기시간 만족도	3.5점
	센터 생활관련 정보전달 만족도	3.5점
시설 환경	필요물품의 적절한 제공	4.5점
	생활실 환경의 청결도	3.9점
	생활실 실내온도 적절성	4.0점
	생활실 내 편의시설 구비성	4.3점
검사 및 모니터링	식사의 양과 질의 적절성	3.6점
	일평균 모니터링 횟수의 적절성	3.0점
	자가진단 시스템의 편리성	4.1점
의료진의 상담과 진료	자가측정기의 편리성	4.4점
	의료진의 예의	4.4점
	의료진의 검사 필요성 설명	3.8점
	의료진에 대한·소통에 대한 배려	4.1점
	상담 원할 시 의료진의 응대	4.3점
퇴소 절차	의료진의 불안에 대한 공감	4.1점
	퇴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3.6점
	기대한 치료 결과 달성	3.4점

자료/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설문 의료진 모니터링 횟수 2회로 적어 생활실 청결도·식사 부실 문제점

코로나19에 걸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던 서울시민들은 의료진의 모니터링 횟수가 2회로 적고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벌인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경험 조사'에서 412명의 응답을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재단은 생활치료센터 이용자들이 ▲ 입소 절차 ▲ 시설·환경 ▲ 검사 및 모니터링 ▲ 의료진의 상담과 진료 ▲ 퇴소 절차 총 5개 영역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다.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입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입소까지 소요된 대

기시간 만족도', '센터에서의 생활 관련 정보전달 만족도'에 모두 3.5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센터 시설과 환경 부문에서는 생활실 상태가 정갈하지 않고 식사가 부실한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물품 제공(4.5점), 실내 온도(4.0점), 생활실 내 편의 시설(4.3점)에는 모두 4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내린데 비해 '생활실 환경의 청결도'(3.9점), '식사의 양과 질'(3.6점)에는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매겼다.

김미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병원경영지원부부연구위원은 "기존 시설을 급하게 개조해 센터로 활용한 부분과 감염 위험 등으로 생활실 청결도 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사 또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도시락만을 계속 먹어야 해 만족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2번의 모니터링을 받았는데 이 횟수가 적다고 여겨 불만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 '일평균 모

니터링 횟수에 대한 적절성'은 3.0점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생활치료센터 지침에 따르면 1일 2회씩 의료진이 입소자를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하루 평균 2번의 의료진 상담과 진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소자들이 코로나19 확진과 격리로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 더 자주 확인을 받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단은 풀이했다.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의료진의 예의'(4.4점), '상담 원할 시 의료진의 응대'(4.3점), '의료진의 불안에 대한 공감'(4.1점)에 만점인 5점에 가까운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해당 영역에서 '의료진의 검사 필요성 설명' 항목만 유일하게 3.8점을 기록, 4점을 넘지 못했다.

김미선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입소

자들은 코로나19 검사(PCR)에서 총 2회의 음성 판정을 받아야 생활치료센터에 나올 수 있었는데 기준이 변경된 후에는 입소 10일 후 증상이 없으면 퇴소가 진행됐다"면서 "기준 변경 후에는 실제 검사 없이 퇴소가 이뤄져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입소자들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항목이 4점 미만으로 집계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단은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퇴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기대한 치료 결과 달성'에 각각 3.6점과 3.4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실제 생활치료센터를 경험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개선해 나간다면 코로나19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 확산 시에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트윈데믹 대비 호흡기 클리닉 설치

## 보건소·의료기관 등 34곳 설치 내달 수능 대비 방역조치 마련

올 연말까지 서울 곳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전담하는 의료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체계 운영에 역점을 둔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연내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곳을 만들기로 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보건소나 요건을 갖춘 병·의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지정된다. 호흡기질환 환자를 일차적으로 진료하고 필요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직접 하거나 선별진료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에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방역 조치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응시생은 서울의료원과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관용 또는 구급차량으로 고사장에

실어나를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일반 시민과 고위험시설 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 6곳의 병상을 유지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예비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염수분사장치·열선장치 추가 설치(폭설) ▲단수 대비 비상급수장비 확보(한파) ▲노숙인 응급잠자리 공간 확보(안전)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확대(민생안정) 등 분야별 월동대책을 추진한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만추의 산행 15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을 찾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손실 1조원... 대응방안 토론회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관 재정적자가 큰 서울 지하철은 올해 1~8월 수송인원이 13억50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명에서 약 24.9% 감소했다. 올해 서울 지하철의 당기순손실은 991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약 36.9%인 3657억원으로 추산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자를 겪는 전국 대중교통 관련 기관들이 16일 국회에서 대응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규모

# 서울 자전거 도로, 눈에 확 띄게 표시한다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추진 바탕색 입히고 표시 간격 두배 늘려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우선도로'에는 노면 표시에 암적색의 바탕색을 입힌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는 도로로 노면에 자전거 표시를 한 곳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흰색 자전거 그림만 그려져 있어서 자전거와 차량 이용자 모두 식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50m인 표시 간격은 25m로 줄여 안내 표시를 배로 늘릴 예정이다. 새 표시는 사직로, 새문안로, 우정국로, 삼일대로 4.7km 구간에 이달 중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총 111km에 달하는 시내 자전거 우선도로를 매년 20km씩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는 기존에 페인트로 도색해 쉽게 지워졌던 안내 표시를 반영구적인 색깔 블록으로 교체한다.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로



자전거 우선도로 시인성 개선 모습. /서울시

가 구분되지 않은 비분리형 도로부터 개선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 도로의 시인성을 높여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3 | 해질 / 17:20

11월 16일 (월)  
음력 : 10월 2일

수도권 날씨 8~1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4/16, 동두천 5/17, 가평 3/16, 파주 4/16, 서울 8/17, 양평 5/16, 인천 10/15, 수원 9/16, 용인 9/16, 평택 5/18

·지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